

2018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동계 단기 현지조사(오키나와) 팀보고서

<오키나와의 독서 및 출판 문화>

-현산 책을 중심으로-

책 좀 읽어 조

경제학과 201421782 김헌태

정치외교학과 201421956 윤황성

E-비즈니스학과 201421433 박성진

목차

1. 연구 주제	3
2. 조사 방법	3
3. 본론	4
3.1. 현산 책이란 무엇인가.....	4
3.1.1. 현산 책의 기원.....	4
3.1.2. '현산 책'과 '오키나와 책'	5
3.1.3. 현산 책에 드러나는 오키나와의 특색.....	6
3.1.4. 현산 책의 주요 독자층과 작가층	7
3.1.5. 현산 책의 장르	7
3.1.6. 현산 책이라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이유	8
3.2. 오키나와의 도서관과 헌책방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	9
3.2.1. 도서관	9
3.2.2. 헌책방	11
4. 결론	11
4.1. 오키나와 현 만의 독서문화란	11
4.2. 쇠퇴하는 독서문화와 출판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고민	12
5. 보고서의 한계와 의의.....	13
6.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	13

1. 연구 주제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지리적·역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군과의 전투가 직접 벌어졌으며 종전 후 미군기지가 주둔하게 된 역사와, 중계무역으로 성장한 류큐 왕국의 '찬푸루 문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선행연구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오키나와의 문화들도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의 '현산 책(県産本)' 문화에 주목했다. 현산 책이란 오키나와 현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책을 가리킨다. 이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키워드이다. 우리는 '현산 책'과 원어를 직역한 '현산본' 모두 구글 검색이나 학술정보 검색 등으로 나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우리가 연구를 시작할 때 참고한 자료는 오키나와의 출판 시장에 대해 소개한 짧은 기사 한 편과, 현산 책에 흥미를 느껴 대형 서점의 직원을 관두고 오키나와에 헌책방을 차린 한 에세이 작가의 인터뷰 뿐이었다. 이 주제는 오키나와의 문화에 대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고,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2.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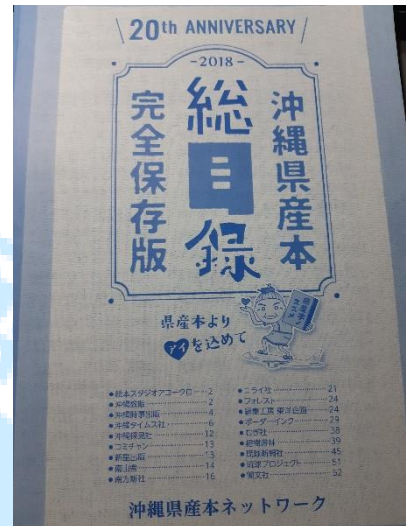
현산 책 문화는 지역 출판사와 도매상, 그리고 서점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현청 공식 홈페이지나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그 실태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지에서 기관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메일을 통해 여러 기관과 연락한 끝에 추려진 인터뷰 대상은 총 4 곳으로, 다음과 같다.

- 류큐대학 부속도서관: 류큐대학은 오키나와 현 소재 국립 대학이다. 우리는 현산 책에 대해 대학 도서관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들을 조사하고자 했다. 또한 대학 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이루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오키나와 현립도서관은 오키나와 현 나하 시에 소재한 공공 도서관이다. 우리는 공공 도서관이 가진 현산 책에 대한 시각과 그 보존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일본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조사하고자 했다.
-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울랄라):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는 오키나와 현 나하 시 마키시 공설시장 내에 위치한 헌책방이다. 사장인 우다 도모코 씨는 일본의 대형 서점 체인인 '준쿠도서점'의 직원이었으며 준쿠도서점 나하점 개점에 참여했다. 이후 현산 책에 매력을 느껴 헌책방을 열었으며, 그 과정이 기록된 에세이인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는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다. 우리는 그가 가진 현산 책에 대한 시각과 오키나와 독서 및 출판 문화에 대해 질문했다.

[2018 동계 단기 현지조사(오키나와) 팀보고서 - 책 좀 읽어 조]

- 준쿠도서점 나하점: 준쿠도서점 나하점은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서점이며,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서점이다. 우리는 실제로 현산 책이 오키나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질문하고, 오키나와만의 독자적인 독서 및 출판 문화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오키나와 관련 서적만이 비치된 코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들 4 곳의 인터뷰 대상에게 현산 책에 대한 공통질문을 제기한 뒤, 각 대상에 맞는 추가질문을 통해 '오키나와의 독서 및 출판 문화'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했다.



3. 본론

3.1. 현산 책이란 무엇인가

현산 책이란 “오키나와 출판사가 출판한 책”이라는 데에 모든 인터뷰 대상이 입을 모았다. 류큐 왕국이 존재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오키나와 지역 내에서 출판된 책은 있었지만, '현산 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1998 년 즈음 '오키나와 현산 책 네트워크(沖縄県産本ネットワーク)'가 만들어진 이후이다.

그림 1 지난 해 20주년을 맞은 '현산 책 네트워크'의 현산 책 총람.

“현산 책 네트워크는 오키나와의 출판사가 모인 조직으로, 일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키나와의 독서문화 부흥을 위해) '현산 책 페어(県産本フェア)' 등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직원 마츠다 리쿠 씨-

3.1.1. 현산 책의 기원



그림 2 오키나와 현립도서관에 비치된 오키나와 지역별 역사서. 시보 다 작은 각 구와 마을 단위에 대한 역사서가 여럿 보인다.

현산 책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일본의 전후로 지목되고 있다. 현산 책이 생겨난 첫 번째 배경으로는 오키나와전(戦)이 있다.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 중 직접 전투가 발생한 지역으로, 종이로 된 자료들이 상당부분 소실되었다. 전쟁이 끝난 1940 년대부터 오키나와의 각 지자체는 지역의 내력이나 역사, 문화를 기록한 역사서를 출간했는데 현과 시 뿐만

[2018 통계 단기 현지조사(오키나와) 팀보고서 - 책 좀 읽어 조]

아니라 시정촌 등 작은 마을 단위로도 만들어져 있다. 이는 다른 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키나와 출판문화의 특징이며, 현산 책의 기원이기도 하다.

“책에 강한 추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이덴티티(정체성)라던가, 기록을 잃어버린 부담 등이 작용한 것 같다. 그런 것이 (지역의 역사서가) 다른 현보다 많은 이유로 생각된다.”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봉사반 주임 나카오 료코 씨-

두 번째 배경은 오키나와의 지역적인 특수성이다. 오키나와에서는 일본 본토에서 발행된 책도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원예와 매너 북(가이드 북), 역사 장르가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특성 상 일본 본토의 식물을 기준으로 원예 책이 만들어 졌을 때, 현지의 기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혼상제도 서로 다른 문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맞는 매너 북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본토의 막부 성립이나 전국시대 등의 역사는 류큐 왕국의 역사가 바탕이 되는 오키나와에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오키나와는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책이 필요해졌다.



그림 3 준쿠도서점 나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키나와 관혼상제 매너 북. 모리모토 점장에 따르면 이 책은 12만부 판매되었다.

“여러 부분에서 (본토에서 발행 된) 책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특화된 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토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도쿄의 출판사는 그런 책을 발행하지 않는다. 구하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

-준쿠도서점 나하점 점장 모리모토 코헤이 씨-

3.1.2. '현산 책'과 '오키나와 책'



그림 4 준쿠도서점 나하점의 '오키나와 책' 코너. 현산 책을 포함해 오키나와에 관련된 책이라면 여기에 비치되어 있다. 우측은 준쿠도서점 나하점의 안내도. 좌측 하단의 '沖繩本'으로 표시된 하늘색 구역이 '오키나와 책' 코너이다. 점포는 총 4층(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이다.



[2018 동계 단기 현지조사(오키나와) 팀보고서 - 책 좀 읽어 조]

현산 책과 같이 언급되는 책의 분류로는 '오키나와 책'이 있다. 현산 책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오키나와의 출판사가 출판한 책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반면에, 오키나와 책은 출판된 지역에 관계 없이 오키나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해당한다. 준쿠도서점 나하점의 경우 현산 책과 오키나와 책을 '오키나와 책' 코너에 통합하여 진열하고 있다.

	출판사 소재	내용
현산 책	오키나와	관계 없음
오키나와 책	관계 없음	오키나와 관련

표 1 현산 책과 오키나와 책 비교

3.1.3. 현산 책에 드러나는 오키나와의 특색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출판된 책은 일본 전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오키나와 현산 책은 처음부터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이 아니라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각 마을의 역사나 방언, 요리와 같은 오키나와 특유의 문화가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림 5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에서 마주친 <오키나와 대백과사전>. 지역 신문사인 '오키나와 타임스'에서 출판했으며, 출판된지 30년이 지났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를 테면 '후텐마'라는 지명이 있다. 오키나와 사람은 바로 '기지가 있는 곳'이라고 알지만 현 외의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거기에 하나하나 주석을 달지 않고 모두 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가 진행된다. (현 외의 사람에게) 친절하지는 않다."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 사장 우다 도모코 씨-

"(오키나와는) 문화가 독특해서, 그런 문화만 소개된 책이 다른 현에 비해 많다. 류큐 왕국 시대에 활용하던 요리 레시피가 쓰인 책도 있어서 놀랐다. 그리고 방언 사전도 있다."

-오키나와 헌립도서관 직원 마츠다 리쿠 씨-

"도쿄 쪽에서 보기에는 오키나와 현에서 밖에 팔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략) 주로 현산 책을 출판하는 '보더잉크(ボーダーインク)'의 경우에는 그 내용도 도쿄의 출판물 등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다."

-준쿠도서점 나하점 점장 모리모토 코헤이 씨-

3.1.4. 현산 책의 주요 독자층과 작가층

현산 책의 주요 독자층은 기존부터 현산 책을 읽어온 독자층과 오키나와에 관심도가 높은 연구자, 그리고 관광객 등으로 꼽힌다. 그 밖에는 오키나와 출신이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오키나와에 대해 알고자 읽는 경우가 있다.

“제일 많은 독자 층은 오키나와의 고령층이다. 30년쯤 전의 현산 책은 서브컬처, 젊은 층의 문화에 대해 쓰인 책이 많았다고 안다. 최근 젊은 층은 좀처럼 현산 책을 읽는 경우가 적어서 30년 전부터 읽던 사람들이 지금도 읽고 있다.”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 사장 우다 도모코 씨-

“오키나와 현의 사람이 9할 정도. 남은 1할은 오키나와에 흥미가 있고,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다. 내지에서는 ‘오키나와 병’이라고 하는데 병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오키나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산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은 흥미를 갖게 된다.”

-준쿠도서점 나하점 점장 모리모토 코헤이 씨-

“류큐대학에는 오키나와를 연구하는 전공이 있다. 거기의 학생들이나 현 외에서 오키나와 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현산 책을 찾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류큐대학 부속도서관 자료서비스계 계장 아카미네 료코 씨-

현산 책의 작가층은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들은 일반인이 간단히 책을 출판하는 풍토가 있어서 작가층이 다양하다고 말한다.

“이러테면 ‘60세가 되었으니 자신의 책을 낸다’는 식으로 책이 나오는 것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 모두가 책을 만든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 사장 우다 도모코 씨-

3.1.5. 현산 책의 장르

현산 책은 ‘오키나와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라는 구분만 존재하고 내용 면에서는 별도의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다. 인터뷰 대상들이 지목한 현산 책의 주요 장르는 역사, 기지문제, 자연, 민속, 방언, 에세이 등이 있다.

“(현산 책의 장르에는) NDC¹ 분류의 카테고리가 전부 들어가 있어 매우 폭넓다.”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직원 마츠다 리쿠 씨-

현산 책과 비교할 수 있는 본토의 개념으로는 ‘향토 책’이 있다. 현산 책도 향토책으로 불리우나 오키나와의 향토 책에 대해서만 ‘현산 책’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향토 책에도 도시의 역사가 있지만 오키나와만큼 좁은 범위까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미식이나 레스토랑 가이드, 등산, 풍습과 같은 장르로 치우쳐 있다. 하지만 현산 책의 경우 다양한 장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¹ NDC: 일본십진분류법(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日本十進分類法). 일본의 도서관에서 넓게 쓰이고 있는 도서분류법이다.

“다른 현의 향토책이라면 특별히 기이한 풍습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교육자 등 제한된 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 많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오키나와 현산 책은 현 내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 면에서도 다양성이 있다.”

-시장의 우라라 사장 우다 도모코 씨-

3.1.6. 현산 책이라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이유

우리는 현장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현산 책이라는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우선은 오키나와 관련 책에 대한 높은 수요를 첫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 특수성 등의 이유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키나와 책과 현산 책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1월 10일 기준 준쿠도서점 나하점의 종합 주간매상랭킹 상위 10권 중 5권이 오키나와 관련 서적이었다.

그림 6 2018.12.30 ~ 2019.01.05 준쿠도서점 나하점 종합 주간매상랭킹. 상위 10권 중 5권의 제목에는 '오키나와'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이들 5권은 '오키나와 책' 또는 '현산 책'이다.



“도쿄의 출판사는 초판을 3~4천부 만들어서 소진되면 증판을 한다. 오키나와 현산 책 부문에서 가장 큰 출판사인 보더링크의 경우 초판을 2~3천부 만든다. (일본 전체 인구) 1억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오키나와 현민) 140만에 비슷한 기준으로 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신기한 부분이다. 그 정도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키나와 책에 대해 수요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준쿠도서점 나하점 점장 모리모토 코헤이 씨-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자립적인 출판 환경이다. 오키나와 내에는 현산 책을 출판하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회사가 있으며 인쇄회사도 현 내에서 큰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적으며, 신문사나 인쇄소 또는 헌책방 등에서 출판을 겸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책을 출판하면 역시 오키나와 현의 독자적인 도매상들이 여러 곳에 책을 분배한다. 이와 같은 유통 시스템이 오키나와 현 내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 외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 유통 경로를 이용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형 출판사에 원고가 받아들여져야만 책이 나온다는 고정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쇄소에 가서 자신의 책을

[2018 통계 단기 현지조사(오키나와) 팀보고서 - 책 좀 읽어 조]

인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현장에서는 '누구나 책을 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오키나와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이다. 본토의 기준으로 쓰인 책은 오키나와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맞는 책을 출판해야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는 곧 오키나와 현산 책이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언, 류큐의 예능 등은 내지와 다른 오키나와의 특수성이다. 춤이나 가라데, 악기 등의 문화를 다룬 현산 책도 많다. 오키나와 전문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키워드로 한 책도 많다.”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부관장 카키나하나 아키히코 씨-

3.2. 오키나와의 도서관과 헌책방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

3.2.1. 도서관

오키나와의 공공 도서관인 오키나와 현립도서관은 '오키나와공공도서관연합회'(이하 연합협의회)와 '오키나와현도서관협회'(이하 도서관협회)에 속해 있다. 연합협의회는 오키나와 현 내의 공공도서관, 도서관협회는 현 내와 아마미 지방의 도서관 관계자들의 연계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활동한다. 주로 책을 테마로 한 행사들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그림 7 오키나와 현립도서관과의 인터뷰 도중.

그림 8 오키나와 현립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의 포스터와 도서관협회가 발간한 회지이다. 사진에 찍힌 것들은 인터뷰 당시 직접 받은 자료들이다.

“최근 일본의 도서관에서는 과제해결이라는 것이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 빈곤문제, 실업문제, 건강관련도 있는데 관련 자료를 수집해 그런 과제를 안고 오는 분들에게 책 뿐만 아니라 연수회와 강좌까지 넓게 제공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부관장 카키나하나 아키히코 씨-



그림 9 오кина와 현립도서관의 광역대차 서비스 구역 도식.

오кина와 현립도서관은 육아 문제도 의식하는데, 선생아가 일정 기간을 지날 때마다 그림책을 선물하는 등의 육아지원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관내에는 그림책과 만화책 등으로 이루어진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 구역'과 별도의 놀이공간을 구비해 어린이들이 있을 안전한 장소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공공도서관은 향토자료의 보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오кина와 현립도서관은 약 35만 권의 향토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4만여 권은 폐가식 자동화서고에 보존되어 카운터에서 열람 가능하다.²

그리고 공공 도서관은 종합대차서비스에 서로 연계되어 있다. 현민이 읽고 싶은 책을 요청하면 시정촌, 현, 현외의 순으로 자료검색이 이루어지며 다른 도서관 모두에 책이 없을 경우 국립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오кина와의 경우 공공 도서관 38 곳, 공민관 도서실 13 곳, 전문도서관 9 곳, 대학도서관 9 곳이 종합대차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오кина와는 본섬과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섬에 도서관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кина와 현립도서관은 1년에 500 권 정도의 책을 각 섬마다 2 번 정도 이동도서관의 형식으로 광역대차하고 있다.

오кина와 현립도서관의 경우 국제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도쿄, 오кина와의 각 출판사가 연계한 '동아시아출판인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부천의 상동도서관에 오кина와 특별관을 개관할 때의 교류회도 있었다.

"교류추진회가 있어서 아메리카, 상하이나 부천으로부터 책을 기증받아 전시하는 구역도 있다. 이는 정치와 다른 문화적 연결이기 때문에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으로서의 소중한 교류이다."

-오кина와 현립도서관 부관장 카키나하나 아키히코 씨-

한편 공공 도서관과 달리 대학 도서관은 대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뷰한 류큐대학 부속도서관은 지역에 개방되어 있었다. 류큐대학 부속도서관은 종합대차서비스에도 참가하고 있어 실제로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통해 기여하고 있다.

² <平成30年度沖縄県立図書館要覧>, 沖縄県立図書館, 2018.9.

3.2.2. 헌책방

신간서점은 헌책방에 비해 정해진 경로로만 책을 매입할 수 있다. 오키나와 현산 책의 경우에는 본토와 같이 큰 유통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간서점이 매입할 수 없는 현산 책이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적은 부수로 출판되는 현산 책이 많아서 출판된 직후라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헌책방은 신간서점과 같은 제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매입 경로로 희소한 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헌책방은 오키나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현산 책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

“오키나와에는 헌책방이 없는 섬도 많다. 그곳의 사람들은 필요 없어진 책을 버릴 수 밖에 없다. 그럴 때 귀중한 책이 없어진다. 헌책방이 있다면 그런 귀중한 책을 팔아서 다음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문화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어서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 사장 우다 도모코 씨-

그림 10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의 인터뷰 도중. 이 곳의 별명은 '일본에서 가장 작은 헌책방'이다.



4. 결론

4.1. 오키나와 현 만의 독서문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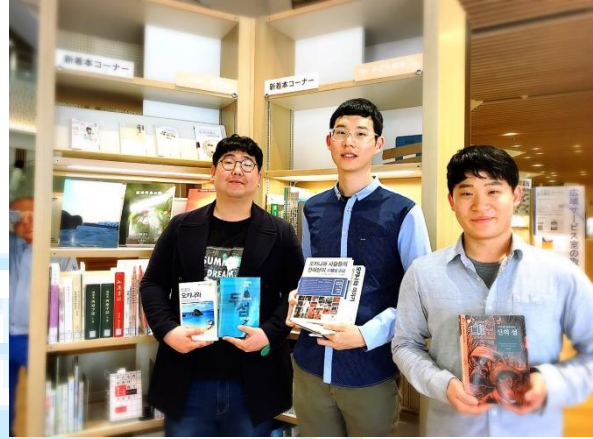
오키나와의 특징적인 독서 문화는 현산 책이며, 오키나와 현민들이 읽는 현산 책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현산 책에는 본토와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 자신들을 둘러싼 문제와 정보들이 그들의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다. 오키나와 현민들은 이들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독서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말은 문학, 철학, 사회과학 등 폭넓은 독서의 양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그들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면 다른 현과 비슷한 독서 행태를 보인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키나와'에 관련된 책이며, 그 주제에 특화된 독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2018 동계 단기 현지조사(오키나와) 팀보고서 - 책 좀 읽어 조]

현산 책의 내용에 대한 수요는 현산 책을 존재하게 만드는 출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자적인 출판 및 유통 체계가 완성되어 있고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책을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의존이나 영향 없이 누구나 책을 발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그림 11 (상) 준쿠도서점 나하점 신간 코너의 한 쪽을 메운 '오키나와 책'.



(우)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신간 코너에서 한국어로 된 '오키나와 책'을 발견하고 찍은 기념사진.

<p>"어린이에게 (오키나와의) 방언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방언 책을 (현 차원에서) 학교에 나눠주고 있다."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봉사반 주임 나카오 료코 씨-</p>
<p>"인구비례로 생각하면 오키나와는 140만 인구이다. 일본 전국으로 생각하면 도쿄에 출판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인구비례로는 오키나와가 많다. 140만에 대해 100개 출판사라는 수치는 다른 현에 없는 경우이다." -준쿠도서점 나하점 점장 모리모토 코헤이 씨-</p>
<p>"기지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알고자 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일 것이다. 사회 문제라고 말해도 오키나와의 밖에 대한 것은 아마도 흥미가 없는게 아닐까. (중략)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회과학 책도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 사장 우다 도모코 씨-</p>
<p>"오키나와는 지역이나 향토에 관한 독서가 발달되어 있고, 관련된 출판물을 주요하게 수집하는 도서관도 적지는 않아서 다른 도도부현과 비교하면 자신이 있는 지역의 출판물에 접근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류큐대학 부속도서관 자료서비스계 계장 아카미네 료코 씨-</p>

4.2. 쇠퇴하는 독서문화와 출판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고민

이번 조사활동에서 눈에 띄는 현장의 움직임은 참여행사를 늘리고, 기관들끼리 연계하는 모습이었다. 오키나와는 현산 책이 두드러질 뿐, 전반적으로는 독서문화와 출판시장이 쇠퇴해가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었다. 우리는 각 인터뷰 말미에 "쇠퇴하는 독서문화와 출판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공통으로 넣었다. 아래는 각 기관의 고민이 담긴 답변이다.

“정보 리테라시(정보활용력) 교육 등을 조금씩 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대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드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류큐대학 부속도서관 자료서비스계 계장 아카미네 료코 씨-

“도서관과 출판사, 서점에게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을 늘려보자는 공통된 부분이 서로 있다. 책을 테마로 이들을 연계하여 이벤트 등을 열고, 도서관에 오도록 만들어 조금씩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부관장 카키나하나 아키히코 씨-

“옛날과 같이 모두가 책만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책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일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옛날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 사장 우다 도모코 씨-

“내용이 재밌는 책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매일 새로운 책이 220권 출판된다. 거기서 좋은 책과 만난다는 것은 기적적인 이야기이다. 출판사가 내용이 어떻든 돈이 필요해서 출판을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건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PR이나 이벤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준쿠도서점 나하점 모리모토 코헤이 씨-

5. 보고서의 한계와 의의

본 보고서는 ‘오키나와의 독서 및 출판 문화’에 대해 4박 5일 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연구는 오키나와 현산 책 부분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오키나와’에 한정된 독서 관련 통계를 탐색하기 어려웠기에 독서 문화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또한 출판 문화 측면에서 한국에서 오키나와 지역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출판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찾을 수 없던 정보인 오키나와 현산 책의 기원과 특성, 유통 시스템을 일부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 보고서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보다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

- 류큐대학 부속도서관 자료서비스계 아카미네 료코(赤嶺良子) 계장
-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카키나하나 아키히코(垣花昭彦) 부관장
-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봉사반 나카오 료코(仲尾涼子) 주임
-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마츠다 리쿠(松田陸) 직원
- 시장의 헌책방 우라라 우다 도모코(宇田智子) 씨
- 준쿠도서점 나하점 모리모토 코헤이(森本浩平) 점장